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농가의 사회경제적 격차: 민족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정수열* · 이승철** · 조영국***

Socio-Economic Differentials along the Ethnic Line among Coffee Farms in Central Highland, Vietnam

Su-Yeul Chung* · Sung-Cheol Lee** · Young Kug Joh***

요약 : 베트남 중부고원 지대는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커피생산의 비약적 증대, 글로벌 커피시장과의 적극적 연계 등을 통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커피생산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베트남 저지 주민의 대규모 유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부고원지대는 소수민족 중심 사회에서 저지 출신 주류 민족, 킨(Kinh)족 중심 사회로 변모하였다. 한편 커피산업의 발전은 중부고원지대 가족농의 사회경제적 격차 나아가 계층 분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피 재배 여부 및 커피재배에서의 생산성 격차가 그대로 사회경제적 격차로 발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 소수민족의 주변화 문제가 부각되었다. 민족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단순히 커피재배 참여 여부만이 아니라 커피경영에 있어서 수익성 격차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민족농가의 커피 경영에 있어서 상대적 저효율이 소수민족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취약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른 상업적 농업 부적응 측면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Edé)족 커피농가를 설문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성은 커피농가간 토지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취약한 자본에 따른 조방적 경영, 부채 문제, 나아가 낮은 소득과 부채부담으로 인한 비효율적 판매전략-대표적으로 판매 시기 조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주요어 :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산업, 민족성, 사회경제적 불평등, 에데족, 킨족

Abstract : Since after the 1986 economic reform policy(*Doi Moi*), the central highland in Vietnam has transformed into one of the largest coffee producing areas. The transformation had been supported by mass migration of ethnic *Kinhs* from the coastal lowland. It did not take long for the *Kinh* migrants to be the ethnic majority in the region. Meanwhile the growth of coffee industry entailed in socio-economic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 03034237).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 sychung@smu.ac.kr)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leesc@dongguk.edu)
***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Hyupsung University, ykjoh@uhs.ac.kr)

disparity, specially between *Kinh* migrants and native ethnic minorities. The disparity has become obvious not only between coffee farming *Kinhs* and non-coffee farming ethnic minorities but also between coffee farming *Kinhs* and ethnic minorities. The previous literatures highlight the lack of human and social capital and the lagging modernization in ethnic minority societies. However, they fall short in showing the explicit processes why ethnic minority coffee farmers earn less than ethnic majority counterparts. With a case study of Dak Lak province, this research attempts to show the reason why there is income gap between *Kinh* and ethnic minority *Ede* coffee farmers by comparing their ways of producing coffee and selling their products. The results show that *Ede's* land productivity is significantly lower than *Kinh's*. It is because *Ede* farmers use less fertilizer due to the shortage of the capital. Also they often get into debt for coffee production and should pay it back right after the harvest. It deprives them of chance to raise earning by selling the coffee beans at a higher price.

Key Words : central highland in Vietnam, coffee industry, socio-economic disparity, ethnicity, *Ede*, *Kinh*

1. 서론

베트남은 중부고원지대를 커피벨트로 변모시킴으로써 세계 제2의 커피생산국으로 도약했다. 과거 중부고원지대는 연안 저지대에서 중심으로 전개된 베트남의 역사에서 소외된 변경지역으로 삼림이 뒤덮고 있었으며 화전농업과 약간의 가축 사육을 하는 소수민족들이 흩어져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식민시기에 들어서서 프랑스인에 의해 설립된 플랜테이션이 커피를 포함한 상품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생산량은 미미했다. 베트남 종전과 함께 중부고원지대는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통일 베트남 정부는 다수의 신경계 구역(New Economic Zone)을 지정하고 토지를 몰수하여 합작사, 국영농장, 국영임업기업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으로 시행된 도이모이(Doi Moi)는 합작사와 국영농장을 해체하고 토지를 가구와 개인에게 분배하고 자유로운 경작을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가족농 중심의 생산체제가 마련되었고, 커피생산도 소규모 가족농에 의한 생산 비중이 훨씬 높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 베트남 정부는 중부고원지

대 개발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주 장려 정책과 소수민족 정주 정책을 실시하였다. 연안 저지대 인구압을 낮추고 변경지역의 국경을 수비하며 소수민족에 대한 통치력을 제고한다는 부가적인 목적으로 다수민족인 킨(*Kinh*)족을 계획적으로 이주시켰다. 계획이주정책은 1990년대 들어 중단되었으나 커피 수출증대와 함께 중부고원지대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경제적 기회를 찾는 저지대 킨족의 이주는 자발적으로 계속 이어졌다.

커피산업 성장에 따른 킨족의 이주는 중부고원지대의 민족 구성을 변화시켰다. 중부고원지대에서 핵심 커피 생산지인 닥락 성의 경우 에데(*Ede*)족이 주민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킨족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었다. 단순히 인구학적 구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계도 변했다. 자급자족의 전통적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시장상품경제 도입과 글로벌 자본주의 커피 상품 사슬로 편입되면서 소수민족 원주민 에데족 내부의 계층 분화도 발생하였다. 일부는 부유한 커피농가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사회경제적으로 주변화하였다. 때로는 중부고원지대 외곽으로 이동하는 공간적 주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다수의 소수민족이

커피생산에 참여하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주변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중부고원지대 소수민족 원주민 일부가 커피 생산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닥락 성의 다수민족 이주민인 킨족과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족을 사례로 커피 생산 과정에 대해 설문 조사하여 민족 간 노동·토지생산성을 비교함으로써 민족 간 격차를 확인하고 그 발생 배경을 살펴본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베트남 중부고원지대의 커피 산업 성장, 배경, 요인, 과정, 지역이슈를 문헌을 통해 정리하고 역내 민족집단 간 경제적 격차에 대해 기존 연구가 보인 한계점을 확인했다. 3장에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사례조사지역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커피농업소득에 있어 민족집단 간 격차를 확인하고 생산·판매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그 변인을 살펴본다.

2. 커피변경지역의 형성 과정과 사회경제적 변화

베트남에 커피산업이 도입된 것은 프랑스 식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상당 기간 동안 생산은 미미했다. 베트남 전쟁 이후인 1977년 2만ha에 불과했던 커피재배지 면적은 1987년 10만ha으로

넓혀졌지만 여전히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히 확대되어 1999년에는 50만ha를 돌파했으며 그 이후 증가세는 현저히 둔화되었지만 꾸준히 증가해 2012년 현재 약 60만ha에 이르렀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커피종은 로부스타(Robusta) 95%, 아라비카(Arabica) 5%로 로부스타가 주를 이룬다. 총 생산량의 7~8%만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대부분이 수출된다. 2008년에는 100만 톤 원두가 생산되었으며 수출액이 미화 20만 달러에 달했다(WASI, 2012). 2014/15년 베트남은 브라질 다음으로 커피콩(생두)을 많이 생산하였으며 세계 커피생산의 18.7%를 담당하고 있다. 같은 시기 베트남은 세계 커피 수출의 18.1%를 담당하는 제2 수출 대국이다(ICO, 2016).

닥락 성에서 커피산업의 발달은 인구 성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1967년 닥락 성의 인구수는 10만 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베트남 전쟁 이후인 1979년에는 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급증하였는데 1995년에는 130만 명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83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인구 급성장에는 자연적 증가보다 인구 유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

통일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 유입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 기간 동안 이주민 수는 총 65만여 명이었으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직후에는 신경제지구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계획 이주민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도이모이 이후 집단농장 해체와 토지 사적 점

표 1. 닥락 성으로 이주

(단위: 명)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6	합계
계획 이주	114,267	100,002	79,836	17,649	311,754
자발적 이주	14,693	40,688	91,658	195,804	342,843
합계	128,960	140,690	171,494	213,453	654,597

자료: 정수열(2013) 재인용

유, 이용, 거래가 허용되고 커피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주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 이주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베트남은 54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다수민족인 킨족은 저지대에 소수민족들은 고산지대에 분리되어 거주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계획이주이든 자발적 이주이든 이주민의 절대다수가 킨족이었기에 다락 성의 민족 구성은 크게 변화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20년 당시에는 다락 성에는 킨족이 전혀 없었으며 1940년 무렵만 해도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했다. 2013년 현재 이주민인 킨족이 전체 성 인구의 67.0%를 차지하고 에테족이 1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Nung)족, 타이(Tay)족, 므농(M'ngong)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표 2〉 참조).

베트남이 글로벌 커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의 커피산업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내 핵심적인 커피산지인 중부고원지대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커

졌는데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중부고원지대가 글로벌 커피 산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성장요인을 밝히는 연구이다. 중부고원 삼림지대가 커피생산에 적합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도이모이(Doi Moi) 이후 글로벌 시장과 연결되면서 주요 커피 산지로 변모하게 되었다(Tan, 2000). 또한 해안 저지대에서 중부고원지대로 인구 이동이 없었다면 커피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Hardy, 2000). 베트남 전쟁 이후 도시 지역의 인구압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이주 장려 정책 또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Desbarats, 1987). 이러한 계획이주로 인해 형성된 이주네트워크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걸쳐 광범위한 자발적 이주를 용이하게 했다(정수열, 2013). 종합적 연구로 조영국(2013)은 중부고원지대의 구조적 변동과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커피 시장의 영향 이외에, 최근에 베트남 국가체제 내부로 편입과정을 거친 입지적 성격인 '변경적 특수성'과 체제전환과정의 제도적 변화인 '전환경제적 특수성' 등 세 측면의 영향을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커피산지로의 변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자연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Linskog *et al.* (2005)은 환경영향평가에 사용하는 분석틀을 확대시켜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포함된 개발영향을 상세히 조망했다.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개선은 뚜렷하지만 상품경제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에 뿌리내려져 있던(embedded) 여러 제도적 기제들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Lee, S-C(2013)은 다락 성 내 커피 상품 사슬을 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커피중개상은 농부에게 주어져야 할 수익을 가로채는 부정적 존재로 기술되어 왔다. 하지만 중개상이 취하는 이윤은 다른 주체에 비해 미미하며 도리어 농가들이 글로벌 커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 커피재배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커피

표 2. 다락 성의 민족 구성 및 거주지 분포, 2013년

	인구수(명)	인구 비중	거주지	
			도시	촌락
킨족	1,161,532	67.0%	365,405 (31.5%)	796,127 (68.5%)
에테족	298,534	17.2%	33,275 (11.1%)	265,259 (88.9%)
농족	71,461	4.1%	2,274 (3.2%)	69,187 (96.8%)
타이족	51,285	3.0%	2,825 (5.5%)	48,460 (94.5%)
므농족	40,344	2.3%	1,709 (4.2%)	38,635 (95.8%)
기타	110,468	6.4%	10,393 (9.4%)	100,075 (90.6%)
합계	1,733,624	100%	415,881 (24.0%)	1,317,743 (76.0%)

자료: Dak Lak Bureau of Statistics, 2013.

(sustainable coffee)를 확산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호철·이승철(2015)은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비나카페(Vinacafe)를 사례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과정과 그 영향을 고찰하였다. 비나카페는 과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국영커피농장을 통합하여 설립된 국영커피회사였다. 그러나 최근 국영기업 개혁조치에 따라 독립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여러 자회사를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꿨다. 이에 따라 의사 결정 권한이 분산되면서 자회사들은 다양한 경쟁력 제고 전략을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베트남 커피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Lee, S-Y(2013)은 글로벌 커피 시장에서 가격 등락에 대응한 베트남 소규모 커피농가의 생존 전략을 탐구했다. 작물 다변화, 환경친화적 생산방식 도입 등의 대응전략은 지역의 커피 재배 시작 시기에 따라 그리고 농가 규모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민족 간 사회경제적 격차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베트남 저지대 킨족의 증부고원지대로의 계획적 이주와 이어진 자발적 이주는 커피 노동력을 제공했다. 하지만 활발해진 커피 생산에서 얻어진 경제적 이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했다. 특히 소수민족 원주민과 다수민족 이주민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정치적 긴장을 낳았다. 닥락 성의 경우 최대 소수민족 원주민인 에데족은 이주민 킨족에 비해 토지 면적과 가구 소득이 확연히 낮아 개발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주변화하였다(Doutriaux *et al.*, 2008). 토지 소유 변화가 주요했는데 커피 재배지로의 개발이 사실상 개별적 토지소유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킨족 이주민의 토지 점유가 증가하였으며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관습적 토지이용이 무시되었다(Kim and Hoang, 2013).

앞서 언급한 1990년대 중반 커피 가격 폭락에 대한 커피 농가의 대응으로 관개나 비료 사용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전략이나 재배 작물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사용되었는데 소규모 농가에 비해 대규모 농가가 소수민족 농가보다는 다수민족 농가가, 그러한 대응 방식을 더 많이 채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민족 간 격차는 자금력과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Ha and Shively, 2008). 또한 커피 가격 하락의 악영향은 마을별로 그 정도가 달랐다. 닥락 성 내 네 개의 코뮌을 사례 분석한 결과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원주민의 비중, 인근 도시지역으로의 접근성, 커피 재배 시작 시점에 따라 상이하였다(Agergaard *et al.*, 2009). 요약하면 글로벌 커피시장에서 가격 하락이라는 외생적 위기가 소수민족 소규모 농가를 더욱 주변화시켰다.

이상과 같이 커피가격등락에 따라 증폭되는 민족 간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격차의 원인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커피 가격 폭락 등 외생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 농업생산능력 부족, 다수민족 주도의 경제 연결망에서 소외가 지목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가 소수민족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된 커피농업에 대한 부적응을 주목하였지만 소수민족 원주민이 커피생산에 참여하면서도 낮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커피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민족 간 격차에 대해서 두 가지 미래 예측이 존재한다. 소수민족 원주민이 1980~90년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커피산업 주도 개발이라는 급격한 변화 과정에 적응력 부족으로 잠시 뒤쳐졌지만 머지않아 변화의 이득을 공유할 것이라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의한 ‘근대화론’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소수민족 원주민이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면서도 자신의 거주하던 지역

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머물면서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개발에 따른 제자리 주변화론 (development-induced in-situ displacement)’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커피벨트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원주민의 미래에 대해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에 대해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방법론과 사례지역 개관

1) 사례지역 선정과 조사방법

다락 성에서 역내 지리적 변이를 고려하여 사례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첫째, 커피생산의 역사가 오래된 지역과 보다 최근에 커피생산을 시작한 지역을 각각

선택한다. 둘째, 이들 각 지역에서 소수민족 원주민 마을과 다수민족 이주민 마을을 선택한다. 그 결과 국영농장 주도로 커피생산이 일찍이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 높은 커피나무 수령이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인 쿠쿠인(Cu Kuin) 현 에아티에우(Ea Tieu) 코뮌에 위치한 소수민족 마을인 분지엣(Buon Ciet)과 다수민족 마을인 톤바(Village 3)가 선정됐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 커피가 생산되기 시작한 신규 생산지역으로 쿠므가르(Cu M'gar) 현 에아므드로(Ea M'Droh)/꽝히엡(Quang Hiep) 코뮌에 소재한 소수민족 마을인 분퉁(Buon Dhung)과 다수민족 마을인 히엡티엔(Hiep Tien)이 선택됐다(〈그림 1〉 참조).

사례지역 조사는 공무원과 커피회사, 중개상 그리고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직접 인터뷰와 농가 설문조사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직접 인터뷰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다섯 차례의 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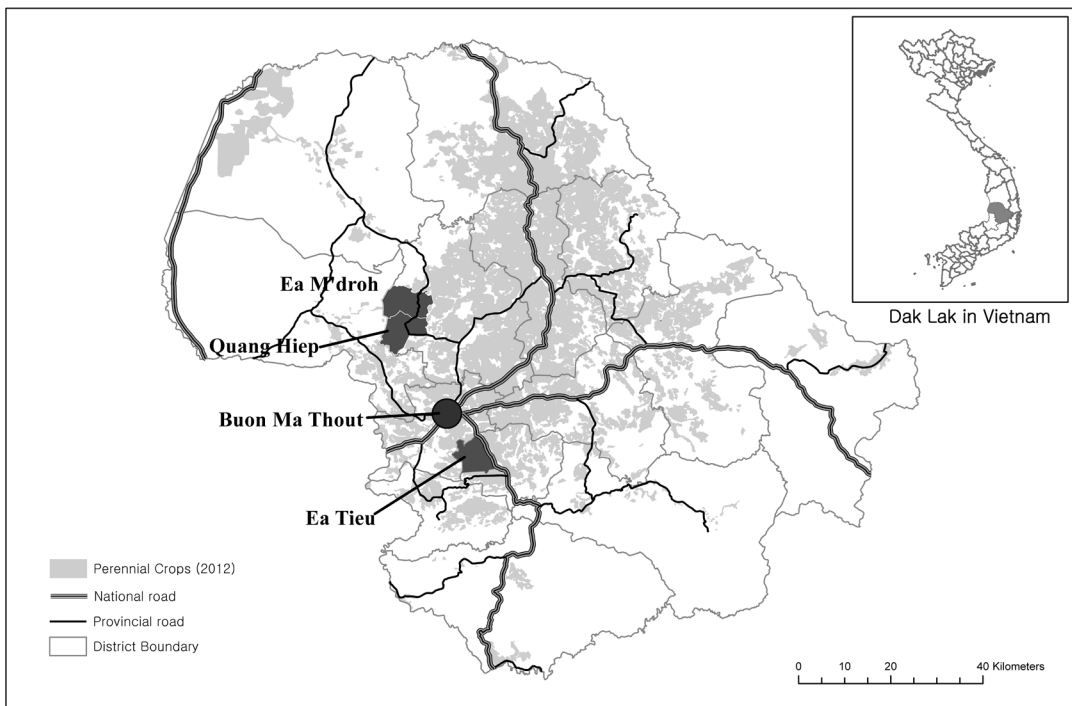


그림 1. 사례조사지역(에아띠에우·꽝히엡·에아므드로 코뮌)의 위치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타이 응우웬(Tay Nguyen) 대학교 경제학과 강사진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의 내용과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킨 뒤 설문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도 조사자와 함께 수차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가구의 선정은 통계적 추출 방법보다는 연구목적에 고려한 유의 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선정 기준은 무엇보다 설문 가구가 커피를 생산하고 있어야 하며 설문 응답은 가구주에게서 받았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 35~55세인 가구만을 선정했는데 이 연령대가 이직이 적고 자녀 양육을 위해 주거가 안정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분지엣 마을 30명, 톤바 마을 30명, 분퉁 마을 43명, 히엠펬 마을 30명 등 총 133명의 커피 농부를 설문하였다.

설문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항목은 가구구성, 연령, 성, 민족성, 학력, 소득원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물었다. 둘째, 이주 역사를 물었으며 셋째, 농지 소유 혹은 차용을 질의했다. 넷째는 커피생산을 위한 기본 시설물, 관개, 비료, 살충제, 노동력 확보, 건조, 신용대출, 생산량, 판매처, 판매가, 판매방법, 기술지원, 지속가능한 커피 채택 여부 등 커피생산에 관련된 항목이었다. 다섯째는 간민족적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빈도를 물었다.

2) 사례지역 개관

(1) 에아티에우 코뎀¹⁾

쿠쿠인 현에 소재한 에아티에우 코뎀은 닥락의 주도인 본마토(Buon Ma Thout)에 인접하여 있으며 그 면적은 4,630ha이다. 가구 수는 4,525호이며 빈곤 가구 수는 528호로 전체의 11.6%에 해당한다. 인구 수는 23,513명인데 쿠쿠인 현 인구의 약 20%에 달한다. 이중 소수민족은 8,330명으로 1,550개 가구를 이루고 있다. 소수민족 대부분은

표 3. 닥락 성 내 사례조사 코뎀에 대한 기초 통계

코뎀	에아티에우	에아므드로	꽝히엵
인구(명)	23,513	7,916	13,257
킨족	18,393	1,728	9,990
에데족	8,200	2,655	5
기타	53	3,533	3,262
가구(호)	4,533	1,629	2,847
킨족	2,941	431	2,119
에데족	1,580	485	1
기타	12	713	721
빈곤가구 수(호)	528	432	203
마을 수	24	11	12
다수민족 마을	17	8	12
소수민족 마을	7	3	0
토지이용(ha)			
자연 지구	4,632	5,754	-
다년생 작물	3,530	2,579	2,725
커피	3,247	1,959	1,925
후추	155	55	460
캐슈넛	44	180	
고무	14	50	400
단년생 작물	453	2,833	2,330
벼	243	270	280
삼림	122	937	-

에데족이며 극소수의 므농족이 있다. 마을 수는 총 24개이며 다수민족 마을(thon; village) 17개와 소수민족 마을(buon; hamlet) 7개로 구성된다. 소수민족 마을이라고 해서 소수민족만 거주하지 않으며 다수민족도 거주한다. 하지만 소수민족 마을 내 다수민족은 10% 미만으로 적다. 주요 종교는 가톨릭, 불교, 개신교이다. 다수민족은 가톨릭 혹은 불교를, 소수민족은 주로 개신교를 믿는다. 코뎀 내 주요 기업으로 고무플랜테이션 1개와 커피 기업 3개가 있다.

에아티에우 코뎀에서는 예로부터 에데족만이 7개 소수민족 마을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다. 1954년 한 무리의 킨족이 에아툴(Ea Tul) 코뎀에

서 이주해 왔다. 이들은 저지대 연안지역 출신으로 에아틀에 정착했다가 2차 이동한 사람이다. 베트남 전쟁 종전 후 1972년에 코뮌 이름이 쿠쿠플링(Cu Kplung)에서 쿠에드럼(Cu EDrum)으로 바뀌었고 1975년 지금의 이름인 에아티에우로 바뀌었다. 1979년부터 또 한 차례의 이주 물결이 있었는데 주로 이들은 또 다른 성 출신의 킨족이었다. 이중 일부는 신경제구역(NEZ) 프로그램으로 왔다. 그 결과 현재 17개의 다수민족마을이 형성되었다.

커피재배는 프랑스 식민 시절에 'Cuvo Si'란 농장이 설립되고 과실수와 더불어 커피를 재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독립 후 1958년까지 고딘디엠(Ngo Dinh Diem) 정권 하에서 주로 고무를 재배하였다. 고무 생산은 베트남 전쟁 이후인 1978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커피는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건담으로 바꿨다.

1977년 기초합작사(primary cooperative)가 설립되고 생산조(production group)가 조직되었다. 1980년 Vied Duc State Farm이 설립되고 지점 격인 Vied Duc1, Vied Duc2, Vied Duc3, Vied Duc4, Vied Duc5, Vied Duc6, Ea Tieu가 차례로 설립되었는데 이 중 3개가 현재 에아티에우 코뮌 영역 안에 있다.

1985년 Vied Duc State Farm의 지점인 Ea Tieu State Farm이 Cuvo Si를 대체하여 설립되면서 커피 재배가 재개되었다. 농지 대부분은 코뮌 소유였으며 극소수 사람들이 국영농장 밖에서 자유 경작하였다. 2009년 Ea Tieu State Farm은 Ea Tieu Coffee Company가 되었으며 비나카페(VinaCafe) 소속이 되었다.

현재 전체 농가 중 80%가 커피를 재배하고 있다. 나머지 20%의 농가가²⁾ 커피를 재배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토지가 있다면 커피를 재배하려 할 것이며 커피 생산을 선호한다.

에아티에우 코뮌에서 토지소유가 보다 명확해

진 것은 1989년에 들어서서였다. 코뮌 소유 토지가 1993년 토지이용권(red book)이 발급되기 전인 1990년부터 배분되었다. 사실 코뮌 소유의 토지에는 두 가지 유형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에 의해 개간된 땅으로 그 크기에 상관없이 토지이용권이 발급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지방 행정조직에 의해 개간된 땅으로 가난한 주민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토지 면적은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최근 2010년 이후 농부 개인별로 Dakman과 Nestle 등 외국기업의 지원 하에 지속가능한 커피(sustainable coffee)³⁾의 일종인 UTZ를 시도하고 있다.

설문조사한 소수민족 마을인 분지엣과 다수민족 마을인 톤바에 있는 커피농가 대부분은 도급계약제 혹은 협력생산제로 생산하고 있다.⁴⁾ 1ha 당 커피콩 생산량은 3~3.5톤이다. 협력생산제 농가는 1ha당 2.75ton의 커피 체리를 국영기업에 지불하고 도급계약제 농가는 1ha 당 2.8ton의 커피 체리를 지불하며 관개 도움을 받는다.⁵⁾

(2) 에아므드로/꽝히엣 코뮌

신규 커피 재배지에 있는 사례조사 마을인 분통과 히엣티엔은 각각 에아므드로 코뮌과 꽝히엣 코뮌에 달리 속해 있지만 이들 두 코뮌은 2003년까지만 해도 하나의 코뮌이었다. 에아므드로/꽝히엣 코뮌은 분마토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 거리로 떨어져 있으며 이들을 잇는 주요 도로는 우기에 웅덩이가 파여 자동차 운행이 어려울 정도다. 도로 개선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신규 개발지라는 방증이다.

구(舊) 에아므드로 코뮌은 1990년에 설립되었고 2003년에 현(現) 에아므드로와 꽝히엣 코뮌으로 분리되었다. 2003년 현(現) 에아므드로 코뮌은 7개 다수민족 마을과 3개 소수민족 마을⁶⁾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8년 들어 톤머어이팜(Thon 18)이 인구유입으로 주민수가 증가함에 따라 톤동팜(Thon Dong Tam)과 톤동카오(Thon Dong Cao)로

분리되어 다수민족 마을 총 수는 8개⁷⁾가 되었다.

에아므드로 코뮌에는 2013년 현재 1,629개 가구에 7,916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거지와 상업지를 제외한 면적은 8,200ha이며 이 중 단년생 작물 재배지는 2,833ha이고 다년생 작물 재배지는 2,579ha이다.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는 커피(1,958.6ha), 캐슈넛(180ha), 후추(55ha), 사탕수수(55ha), 고무(50ha), 그리고 과실(나머지 땅)이 경작된다. 삼림지는 937ha이다.⁸⁾

설문조사한 소수민족 마을은 분동이다. 예로부터 소수의 에데족이 이 마을에 살았으나 베트남 전쟁 중 미군에 의해 분에아나오(Buon Ea Nao), 분마토로 강제 이주되었다. 하지만 이들 에데족 원주민은 1990년과 1993년 사이 마을로 다시 돌아와 44개 가구를 형성했다. 2013년 현재 215개 가구에 997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의 2/3가 에데족이고 1/3은 킨족이며 적은 수이지만 다른 소수민족도 있다.

마을 내 경지의 대부분은 커피재배에 사용되고 있다. 커피재배지의 약 30%만이 마을 주민에 의해 경작되고 있고 나머지는 마을 밖 주민에 의해 경작된다. 이들은 인근에 있는 팡푸(Quang Phu) 코뮌, 에아폭(Ea Pok) 타운, 분마토 등지에 살고 있으면서 관개와 추수를 할 때만 커피경작지 내 조그마한 집에서 기거한다. 마을에서 커피 재배가 시작된 년도는 대략 1990년경이다. 마을 주민의 평균 경지 면적은 0.5ha이다. 60% 가구가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일부 가구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팡히엵 코뮌의 인구수는 약 13,000명이다. 12개의 다수민족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수민족 마을은 없다. 소수민족 마을이 없는 것이지 소수민족 주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수민족은 코뮌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데족 이외에도 11개 민족이 혼재한다. 에데족 이외 소수민족은 이주민으로 1991년 이후 베트남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이주해왔다. 이에 반해 계획이주로 온 킨

족 이주민은 다수가 베트남 중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다낭(Da Nang) 출신이다. 요약하면 팡히엵 코뮌은 닥락 성의 커피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그 기회를 따라 베트남 전역에서 이주해온 다양한 민족들에 의해 새로이 형성되었다.

농업이 지역 소득의 90%를 차지하며 산업과 서비스업은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 면적은 5,479ha이며 이 중 4,800ha가 농업에 이용되고 있다. 커피가 생산되고 있는 농지 면적은 1,800ha이며 커피 묘목이 심어진 면적이 200ha에 달한다.⁹⁾ 이처럼 이 지역에서 커피재배에 대한 선호가 높다. 일부 커피재배지에서는 후추를 간식(間植, inter-planting)하여 작목 다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후추만 전면적으로 재배하지는 않는데 이는 후추가 가격 변동이 심하고 병충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팡히엵 코뮌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소수의 에데족, 므농족 등 원주민이 흩어져 있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 중 피난을 갔다가 돌아 왔으나 킨족이 이미 토지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실질적인 정주가 시작된 것은 1978년부터다. 이 지역이 신경계구역(NEZ)으로 지정되고 기초합작사가 설립되고 생산조가 조직되어 벼와 카사바를 재배하였다.

꾸므가 국영임업회사(Cu M'gar State Forest Enterprise)가 1984년 설립되고 1986년부터 커피생산을 주도해감에 따라 킨족 이주가 본격화되었다. 킨족의 유입은 1991년까지 이어졌고 국영임업기업은 1999년에 해체되었다. 앞서 에아티에우 코뮌과는 달리 도급계약제, 협력생산제와 같은 계약농(contract farming)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 지역에 국영농업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2001년 들어서면서 토지이용권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는데 불법개간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권에 대한 분쟁이 없는 한 발급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주로 커피를 재배하는 40%의 농가만이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미발급 농가는 두 부류인

데 가난한 비(非)커피농가이거나 새롭게 경지로 개간된 지역에 토지를 가진 농가이다.

2012년 4월에는 닥락 성 정부 산하 “Export Import Coffee Company” 주도로 “지속가능한커피협회(Sustainable Coffee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현재 206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50ha 경지에 지속가능한 커피 재배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훈련 프로그램만 시행되고 있어 뚜렷한 성과는 아직 없다.¹⁰⁾

꽝히엵 코핀에서 설문조사된 다수민족 마을을 히엵티엔이다. 이 마을에는 2014년 현재 188개 가구에 893명이 거주하고 있다. 킨족이 167개 가구에 775명으로 다수이고 소수민족은 21가구¹¹⁾에 167명이다. 킨족 이주민의 20%가량은 1978년 국영기업회사(Buon Don State Forest Enterprise)가 설립되고 신경제구역(NEZ)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베트남 중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꽝남(Quang Nam) 성에서 왔으며 나머지 80%는 그 이후 자발적으로 이주해왔다.

농지 442ha 중 대부분이 벼 등 단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데 이용되고 커피재배지 면적은 147ha에 불과하다. 즉 히엵티엔에서 비커피농가가 전체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그 이유는 커피 경작에 적절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은 2.35ha이다. 독자적으로 커피를 재배한 것은 1984년이며 현재 175 가구가 커피 생산에 관여하고 있으며 가구당 커피 경지 면적은 0.2~3ha이다. 단위 토지당 연간 커피 생산량은 3~3.5ton/ha이다.

4. 커피농업소득의 민족집단 간 격차와 그 변인

설문조사에 응한 137개 커피재배농가를 민족집단별로 나누어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의 연령은 부부 평균으로 산출하였을 때 두 민족 모두 49~50세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주가 장년층인 가구를 설문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가구주 연령에서는 민족 간 차이가 없었으나 가구원 수에서는 에데족 커피농가가 6.05명인 반면 킨족은 4.32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표준의 독립성 검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데족 커피농가는 생산연령 가구원 수도 많았다. 이는 에데족이 모계 혈통을 따라 3대가 함께 거주하는 대가족 전통과 관련이 있다. 교육수준에서도 민족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에데족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 그 이하이지만, 킨족의 가구주 중 일부는 중등학교 졸업 이상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커피재배농가의 소득 구성을 보면, 가구 총 소득 중 커피재배에서 얻는 소득 비중이 74.1%에 이를 정도로 커피재배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킨족 가구의 경우 그 비중이 70.3%로 에데족 가구의 비중(8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킨족 가구에 게도 커피재배의 수익은 가구 소득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두 민족집단별 사회경제적 격차 여부는 커피재배의 수익성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두 민족집단의 평균 커피재배면적은 비슷하지만, 단위 면적당 평균 조수입, 평균 순수익 금액은 민족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킨족 커피농가의 평균 조수입, 평균 순수익 금액은 각각 약 163백만 VND(약 7,714USD)¹²⁾, 91백만 VND(약 4,333USD)인데 비해 에데족 커피농가의 평균 조수입과 순수익 금액은 각각 약 127백만 VND(약 6,048USD)과 약 55백만 VND(약 2,619USD)으로 조사되었다. 킨족 농가에 비해 에데족 농가의 커피 수익성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순수익 측면에서 민족집단 간 격차가 더 두드러졌다. 에데족은 킨족과 비슷한 생산

표 4. 설문농가의 인구학적 특성 및 커피 소득

	에데족 커피농가(n=57)	킨족 커피농가(n=80)	전체 설문 커피농가(n=137)
가구, 가구주 특성			
가구주 연령(부부 평균)	49.89(9.26)	49.16(7.94)	49.46(8.49)
가구원 수	6.05*(2.07)	4.32*(1.18)	5.04(1.82)
생산연령 가구원 수	4.40*(1.87)	3.44*(1.27)	3.84(1.61)
교육수준(부부 중 높은 쪽 기준)	3.04*(1.44)	4.23*(0.78)	3.73(1.25)
소득 및 비용 (백만 VND)			
총 소득	154.7*(120.40)	231.07*(164.67)	199.28(152.15)
커피 농업 조 수입	126.65(116.99)	162.56(136.09)	147.64(129.27)
총소득 대비 커피농업 조 수입 비중	78.16(22.67)	73.52(21.35)	75.45(21.95)
커피 생산 비용	72.16(127.84)	71.99(72.64)	72.06(98.97)
커피 농업 순수익	54.50(136.88)	90.62(80.82)	75.59(108.76)
커피생산에 투입된 가족노동 수	3.18*(1.39)	2.28*(0.98)	2.65(1.25)
커피농지 면적(ha)	1.50(1.02)	1.46(1.34)	1.48(1.22)

1)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

2) *은 표본의 독립성 검사에서 9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자체 설문조사.

비를 투입하면서도 커피농업 수입은 더 적게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민족집단내 농가의 수익성 편차도 에데족이 훨씬 두드러졌다. 특히 커피재배면적의 편차는 적는데 수익성 편차가 크다는 것은 농가간 경영의 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에데족 커피농가 중에 경쟁력이 취약한 커피농가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족집단 간 커피농업 수익성 격차가 투입요소의 투입규모에서 비롯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족집단 간 평균 커피재배면적은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또 현지조사과정에서 커피재배지의 질적인 차이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커피재배는 매우 노동집약적 농업이기 때문에 투입노동력의 양과 질이 수익규모를 좌우한다. 그렇지만 에데족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낮고 가족노동력 수가 더 많은데도 오히려 커피농업의 수익성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민족집단 간 수익성 격차는

가족내부의 투입요소의 양과는 관련성이 낮고, 커피농업경영과 관련된 질적 특성에 있어서 민족집단 간 차이가 수익성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커피농업경영의 질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커피농사의 생산성에 어떤 질적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표 5>은 단위면적 당 조수입 및 질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단위면적(1ha) 당 조수입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소수민족 여부, 경영주의 교육수준, 고용노동 활용여부, 비료투입규모, 부채규모, 수확 후 부채상환 여부, 수확 후 커피 원두 비축 기간¹³⁾, 교육프로그램 참여 횟수 등이다. 즉 커피농업의 수익성에는 직접적인 투입요소의 규모 이외에 여러 질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소수민족 여부와 커피농업의 수익성 간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표면적인 민족성 차이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민족성 차이 속에 내재된 여러

질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소수민족 여부와 다른 변인들 간 상관관계에서 알 수 있다. 즉 소수민족들은 경영주의 교육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을 거의 활용하지 않은 채 가족노동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커피 농사를 지으며, 기술습득노력도 저조하는 등 소극적 경영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수민족 농가들은 자본축적이 열악하기 때문에 커피농사를 하는데 부채의존 정도가 높고 그만큼 부채상환 압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장 상황에 유연한 대처를 못하고 궁박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점은 수확 후 원두 비축기간, 비축여부 변수와 소수민족 변수 간에 일정한 상관성이 나타나는 데서 알 수 있다¹⁴⁾.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자

본 축적이 열악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수민족 커피 농가 중에서 커피 재배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시기가 늦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자본축적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고, 특히 199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커피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커피boom 시기를 놓쳐 자본축적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커피농가의 토지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모델1은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했다. 상관계수 제곱(R^2)은 0.523로 커피소득의 총 변화량 중 약 44%가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었다. F-통계량은 7.673로

표 5. 커피농업 관련 질적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1ha당 커피소득	소수민족 여부 (킨=0, 에=1)	교육수준	고용노동 활용여부 (예=1)	1ha당 비료 투자액	커피생산 부채여부 (예=1)	수확 직후 부채상환 여부 (예=1)	커피콩 비축 여부 (예=1)	커피콩 비축 기간	커피교육 프로그램 참여 횟수
1ha당 커피 소득	1.000	-.428**	.245**	.183*	.550**	-.246**	-.188*	.206**	.299**	.172*
소수민족 여부		1.000	-.473**	-.223**	-.295**	.111	.215*	-.031	.029	-.283**
교육수준			1.000	.349**	.223**	-.182*	-.247**	.090	.122	.199*
고용노동 활용 여부				1.000	0.246**	.009	-.218*	.185*	.113	.046
1ha당 비 료투자액					1.000	-.081	-.028	.030	.097	.101
커피생산 부채 여부						1.000	0.262**	-.160	-.307**	-.095
수확 직후 부채상환 여부							1.000	-.114	-.271**	-.029
커피콩 비축 여부 여부								1.000	.145	.066
커피콩 비축 기간									1.000	.015

*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함.

**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함.

자료: 자체 설문조사.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비표준화 회귀계수 (b)가 보이듯이 1ha당 커피소득은 소수민족 여부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커피소득의 비중, 비료투입액, 커피콩 비축 기간과는 유의미한 양(+)적 관계를 보였다. 즉 커피 토지 생산성은 농부가 다수민족일수록, 커피소득의 총소득 차지 비중이 높을수록, 비료투입규모가 클수록, 커피콩을 비축하는 기간이 길수록 높았다.

표준화 회귀계수(beta)를 통해 독립변수들의 중

요성을 비교해 보면 비료투입액과 소수민족 여부 등 두 변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커피콩 비축 기간과 커피소득의 비중 순이었다. 즉 커피의 토지생산성의 변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는 비료투입액, 소수민족 여부, 수확 후 커피콩 비축 기간, 커피소득의 비중 순으로 중요했다.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인 모델 2는 상관관계수 제곱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순서대로 즉 종속

표 6. 커피농가의 토지생산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1ha당 커피소득)

모델 1(다중 회귀분석)				모델 2(단계적 회귀분석)			
	b	t	Beta		b	t	Beta
회귀상수	17.275	.613		회귀상수	39.323**	3.216	
소수민족 여부 (킨=0, 에테=1)	-28.264**	-3.987	-.324	비료 투입액(1ha당)	1.715**	6.603	.438
가구주 연령	.255	.700	.050	소수민족 여부 (킨=0, 에테=1)	-28.242**	-4.883	-.324
가구주 교육수준	-1.023	-.377	-.030	커피콩 비축 기간	7.407**	4.238	.269
가족노동자 수	.678	.266	.020	커피소득의 비중	.322*	2.588	.164
커피나무 수령	.178	.436	.038	$R^2=0.476$ F-통계량=30.015(유의수준=.000)			
외부인력 고용 여부	-1.979	-.319	-.023	/			
커피소득의 비중	.288*	2.164	.147				
커피재배 경력(년수)	.535	.914	.084				
신규 묘목 교체 시 간식여부	5.137	.660	.045				
관개 횟수	2.229	.866	.062				
비료 투입액(1ha당)	1.760**	6.306	.450				
커피 생산 부채 여부	-9.695	-1.477	-.107				
수확 직후 부채 상환 여부	-2.645	-.340	-.025				
거래 중도매상 수	-1.698	-.522	-.038				
커피콩 비축 여부	10.705	1.394	.098				
커피콩 비축 기간	5.392*	2.669	.196				
커피교육프로그램 참여 횟수	.259	.184	.013				
$R^2=0.523$ F-통계량=7.673(유의수준=.000)							

* p<0.05, ** p<0.01
자료: 자체 설문조사.

변수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를 순서대로 찾은 것이다. 모델1의 상관계수 제곱(R²)은 0.476으로 모델 1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모델 2가 5개의 독립변수만 활용하고도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는 것은 어떠한 커피생산방식에 대해 계량적으로 측정할 변수를 추가하여도 커피농가 간 생산성 격차에 대해 설명력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함을 뜻한다. 요약하면 비료투입액, 민족성, 수확 후 커피콩 비축, 커피소득의 비중 순으로 커피 토지 생산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설문조사한 커피농가의 토지 생산성은 비료 투입량, 농부의 민족성, 비축 기간, 소득에서 커피에 의존도로 설명된다. 특히 비료 투입량과 민족성 양자의 설명력이 높았다. 로부스타 종은 아라비카에 비해 재배가 까다롭지 않다. 로부스타 종은 병충해에 강해 세심한 주의를 요하지도 않고 수분과 비료만 적절한 한도 내에서 많이 투여하면 높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Oxfam, 2002). 사례지역 농가에서는 관개 시설 구비와 활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비료 투

입량이 달랐으며 이것이 농가별 커피 토지생산성의 차이를 만들었다. 하지만 소수민족 여부가 커피 토지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다음에서는 커피 생산과 판매 방식에서 민족집단 간 차이를 탐색해보았다.

두 민족집단의 커피 생산 및 판매 방식을 비교하였다. 커피 생산을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 두 민족집단을 비교해 보기 위해 커피나무 수령과 커피 재배경력을 살펴보았다. 커피나무의 평균 수령은 21년을 조금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족 간 차이가 없었다. 추가적으로 커피나무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작목 다변화 여부를 설문하였는데 킨족이 커피나무와 함께 후추나무를 심는 간식을 보다 더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커피재배경력은 커피 수령과 거의 동일했고 민족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설문지역에서 커피 재배가 시작될 때 두 민족집단 모두 개별 농가 단위로 비슷한 시기에 동참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닥락 성에서 커피

표 7. 민족집단별 커피 생산 및 판매 방식

	에데족 커피농가(n=57)	킨족 커피농가(n=80)	전체 설문 커피농가(n=137)
커피나무 수령	21.92(11.24)	21.59(7.50)	21.73(9.20)
신규 묘목 교체 시 간식 여부	0.12(0.33)	0.20(0.40)	0.17(0.38)
커피재배경력(년수)	21.58(7.16)	20.34(6.53)	20.85(6.80)
관개 횟수	3.84(0.96)	4.03(1.35)	3.95(1.20)
1ha당 비료 투입액	18.95*(10.72)	25.53*(10.46)	22.79(11.02)
고용노동 여부	0.60*(0.62)	0.83*(0.38)	0.73(0.51)
커피판매처 수	1.23(1.09)	1.46(0.84)	1.36(0.95)
설문시점 커피콩 비축 여부	0.18(0.38)	0.20(0.40)	0.19(0.39)
수확 후 비축 기간(월수)	1.82(1.50)	1.73(1.62)	1.76(1.56)
부채 여부	0.72(0.45)	0.61(0.49)	0.66(0.48)
수확 후 생산비용 부채 상환 여부	0.32*(0.47)	0.14*(0.35)	0.21(0.41)
커피 교육 프로그램 참여 횟수	1.32*(1.40)	2.58*(2.54)	2.06(2.22)
타 민족 친구가 있는지 여부	0.67*(0.48)	0.44*(0.50)	0.53(0.50)

자료: 자체 설문조사.

재배는 주도와 그 인근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 주변으로 확대된 만큼 커피 재배 시작 시기에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

커피생산방식과 관련하여 관개, 비료, 외부인력 활용에 대해 조사했다. 관개 횟수는 두 민족집단 모두 연 4회 가량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킨족 농가가 농지 1ha 당 비료를 에데족 농가에 비해 많이 살포하였다. 이는 앞서 회귀분석에서 비료 투입량이 토지생산성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기에 커피소득의 민족간 격차는 비료투입량의 차이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킨족 농가는 외부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다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커피농업을 하고 있다.

커피판매에 관해서 커피판매처 수, 설문시점 커피콩 비축 여부, 수확 후 비축 개월 수를 물었다. 상대하는 중도매인 수가 많을수록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킨족 농가가 이용하는 커피판매처 수가 다소 많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커피가격의 등락에 따라 판매시기를 조절하여 커피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맥락에서 커피콩을 비축하는지 여부와 비축 기간을 설문했다. 여기서도 집단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수확 후 1~2개월 내에 수확한 커피의 대부분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부채에 관한 설문에서도 민족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커피 수확 후 비료나 살충제 등 직접 경비로 진 빚을 상환하는 비율은 에데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에데족 농가는 빚에 의존하여 생산하고 수확 후 되갚아야 한다.

커피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농민 조합, 여성연맹, 정부기관, 연구소, 사기업, NGO 등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횟수를 물었다. 두 민족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킨족 농가가 에데족 보다 커피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빈도가 높았다. 간민족적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물음으로 타민족 친구 여부를 물었을 때 에데족이 킨족 보

다 긍정적인 답을 보였다. 킨족은 이주민으로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주류 민족이기에 소수민족과의 친분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킨족은 일상생활과 커피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킨족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소수민족인 에데족 농가는 관개와 비료의 투입량이 산출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로부스타 종 커피를 생산함에 있어 자본 부족으로 부채에 의존하고 있기에 특히 비료 투자에 소극적이다. 생산과정에서 진 부채를 수확 후 갚아야 하기에 생산의 일부를 비축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또한 커피 관련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또한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커피 생산과 판매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민족 간에 존재하며 이들 차이점이 누적되어 토지생산성에서 뚜렷한 격차를 낳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베트남 연안지역에서 중부고원지대로의 이주는 베트남이 세계 제2의 커피 생산국으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었으나 다수민족 이주민과 소수민족 원주민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낳았다. 중부고원지대에서 다수의 소규모 농가들에 의해 커피가 대량 생산되어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이들 두 민족집단 간 사회경제적 지위가 뚜렷한 격차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커피산업육성이라는 지역개발사업이 소수민족 원주민을 지리적 이동없이 제 자리에서 주변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기존 연구는 소수민족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의 부족과 자급자족경제에 기반한 보수적인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상품농업 부적응을 부각했으나 소수민족 원주민이 다수민족 이주민과 같이 커피생산에 참

여하면서도 낮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과정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 커피농가와 다수민족 이주민 커피농가의 커피 생산·판매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소득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 닥락 성에서 커피재배가 오래된 코뮌과 최근에 시작한 코뮌을 선정하고 각 코뮌 내에 있는 다수민족 마을과 소수민족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문항은 인구학적, 사회적 특성, 개인이주경로, 토지 소유, 커피 생산 시설, 생산 방식, 판매 방식, 그리고 간민족적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소수민족인 에데족 커피농가는 다수민족 킨족에 비해 가구원 수가 많았고 커피재배에 참여하는 가구원 수도 많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았다. 소득에 관련해서는 커피재배지 면적은 비슷했으나 에데족 커피농가는 총 가구소득이 낮고, 커피 노동 생산성과 토지 생산성 양자 모두 낮았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민족 간 소득 불평등을 사례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커피농가의 토지 생산성은 다수민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외부인력을 고용할수록, 비료투입량이 많을수록, 커피 생산에 진 빚이 적을수록, 커피콩 수확 후 즉시 판매하지 않고 비축해 둘수록 높았다. 이어진 회귀분석에서 커피농가의 토지 생산성의 변이를 설명하는 중요 변수가 비료 투입량과 농부의 민족성이 드러났다. 비료 투입량이 중요한 변수인 이유는 닥락 성에서 재배되는 커피 종이 로부스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부의 민족성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 민족 간 커피 생산·판매 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커피생산방식에서 에데족 커피농가는 비료 투입을 적게 하고 외부인력 고용도 적었다. 커피판매방식에 관련해서 수확 후 에데족 커피농가는 생산비용을 대기 위해 진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소수민족은 자본 부족으로 비료 투입

에 소극적이고 생산을 위한 부채를 지고 수확 직후 되갚기에 비축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커피 교육 프로그램에는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설문에서 킨족은 타민족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수민족으로서 일상생활과 커피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킨족에게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커피변경지역에서 민족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실증분석으로서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이 다수민족 이주민과 마찬가지로 커피산업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낮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에데족 커피농가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킨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기존 연구가 지리적 차이를 무시하고 닥락 성 전역에 걸쳐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한 데 비해 본 연구는 커피 재배의 역사가 상이한 두 개 코뮌을 선택하여 각 코뮌의 다수민족 마을과 소수민족 마을을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분석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가 다루지 못한 판매과정까지 설문함으로써 커피소득의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소수민족 원주민이 1980~90년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커피산업 주도 개발이라는 급격한 변화 과정에 적응력 부족으로 잠시 뒤쳐졌지만 머지않아 변화의 이득을 공유할 것이라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의한 ‘근대화론’은 현실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베트남 중부고원지대의 커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판매 변인들을 발견하는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생산·판매 변인에 있어 민족집단 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소수민족 농가의 낮은 토지생산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즉, 일부 기존 연구에서 소수민족의 주변화 요인으로 지목된 생소한 작물인 커피와 그 재배법 습득 지연이나 상품경제에 대한 문

화적 부적응으로는 현재 소수민족 커피농가의 낮은 토지생산성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 민족 커피농가 간 커피 생산성의 차이를 확인하거나 그 원인을 다루지 못했다. 입지, 이동성 등 지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사례지역에서 커피산업이 성장하는 와중에 소수민족 원주민에 데족 중에서 일부는 고원지대로 이주하거나 커피 생산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참여하였다가 실패한 농가들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들을 추적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대화론과 주변화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

주

- 1) 2013년 8월 21일 면담을 바탕으로 하였다. 면담자는 Ms. Nguyen Thi Thung(코핀 인민부위원장), Mr. Hoang Ba Nhan(코핀 인민부위원장), Mr. I Kue Eban(농민회 위원장, 에데족), Mr. Nguyen Dac Tien(농민회 부위원장), Mr. Nguyen Comb Trung(코핀 공산당 서기장)이다.
- 2) 20%의 비커피 농가는 킨족 15%와 에데족 5%로 구성되어 있다.
- 3) 비료, 농약 등을 적게 투입하여 재배된 일종의 친환경커피를 말함
- 4) 계약경작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도급계약제(khoan system)라 하여 국영기업이 농지와 커피 나무를 모두 소유하고 비료, 살충제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농부는 임금노동자로 고용되고 기업으로부터 의료보험, 사회보험을 제공받는다. 반면 협력생산제(lienkat system)는 농지는 기업 소유이지만 농부가 커피나무를 소유하고 비료, 살충제 등을 투자한다. 농부가 토지 사용료 격으로 할당량 - 생산량의 20~30% - 을 지불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지불한다. 어떤 계약 유형이든 커피재배에서 있어 농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 5) 4~5kg 커피체리에서 1kg의 커피콩(생두)이 생산된다.
- 6) 소수민족 마을은 분에아므드로(Buon Ea M'droh), 분에아쿠아르(Buon Ea Cuar), 분통(Buon Dhuong)이다.
- 7) 툐동팜(Thon Dong Tam), 툐동까오(Thon Dong Cao),

도안켓(Doan Ket), 다이탕(Dai Thanh), 히엠화(Hiep Hoa), 동다오(Dong Dao), 홉탕(Hop Thanh), 다이탄(Dai Thanh) 등 8개이다.

- 8) 2014년 4월 23일 Mr. Tram Van Tu(코핀 사무소 대표)와 Mr. Au Van Loi(에어므드로 마을 부대표)의 면담을 통해 작성되었다.
- 9) 커피 외에도 고무(400ha), 캐슈넛(300ha), 후추(300ha), 벼 등 단년생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 10) Mr. Nghiem Xuan Hanh(코핀 인민위원장), Mr. Duc(코핀 인민부위원장), Mr. Hai(농민)와의 2013년 8월 19일 면담을 통해 작성되었다.
- 11) 에데족 1개 가구, 므엥족 5개 가구, 파이족과 농족 13개 가구, 그리고 산지우(San Diu)족 2개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 12) 1USD를 약 21,000VND로 환산하였음.
- 13) 일반적으로 수확 후 판매시기가 늦을수록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 따라서 수확후 비축기간이 길면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14) 수확 후 부채상환 여부 변수와 비축기간 변수 간에 통계적 상관성이 존재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정수열, 2013, “계획 이주와 자발적 이주 간 연계: 베트남 닥락 성 커피 생산에서 이주의 역할”,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3), 344-358.
- 조영국, 2013, “베트남 닥락성(Dak Lak Province)에서의 커피생산지리의 변화과정과 그 배경: 변경적 특성, 전환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3), 323-343.
- 지호철, 이승철, 2015, “베트남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경쟁력: 비나카페의 주식회사화 전략”,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415-431.
- Agergaard, J., Fold N. and Gough, K., 2009, “Global-Local interactions: Socioeconomic and spatial dynamics in Vietnam’s coffee frontier,” *The Geographical Journal* 175(2), 133-145.
- Dang, D. T., 2003, “Coffee Production, Social Stratification and Poverty in a Vietnamese Central Highland Community,” in DeKonick, R., Lamarre,

- J., and Gendron, B., eds., *Understanding Poverty in Vietnam and the Philippines: Concepts and Context*, Localized Poverty Reduction in Vietnam (LPRV) Project, 71-100.
- Desbarats, J., 1987,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Vietna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 43-76.
- Doutriaux, S., Geisler, C and Shively G., 2008, "Competing for coffee space: development-induced displacement in the central Highlands of Vietnam," *Rural Sociology* 73(4), 528-554.
- Ha, D. T. and Shively, G., 2007, "Coffee, Boom, Coffee Bust and Smallholder Response in Vietnam's Central Highlands,"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2(2), 312-326.
- Hardy A., 2000, "Strategies of Migration to Upland Areas in Contemporary Vietnam", *Asia Pacific Viewpoint*, 41(1), 23-34.
- ICO(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www.ico.org accessed in Feb 2016
- Kim, D-C and T.Q. Hoang, 2013, "Development of Coffee Production and Land Mobility in Dak Lak, Vietnam",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6(3), 359-371.
- Lee, S-C, 2013, "Coffee Middlemen in Dak Lak, Vietnam: A key stakeholder of coffee value chain as an intermediary of changes in local economie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6(3), 359-371.
- Lee, S-Y, 2013, "The Coffee Production and Change, and the Implications in Dak Lak, Vietnam",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16(3), 389-407.
- Lindskog, E., et. al., 2005, *When rapid changes i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converge: challenges to sustainable livelihoods in Dak Lak, Vietnam*, 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 Oxfam, 2002, *The Impact of the global coffee trade on Dak Lak province, Vietnam: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xfarm Hong Kong, ICARD.
- Tan, S. B-H., 2000, "Coffee frontiers in the Central Highlands of Vietnam: networks of connectivity," *Asia Pacific Viewpoint* 41(1), 51-67.
- WASI(Western Highland Agriculture and Forestry Science Institute), 2012, 내부자료.
- 교신: 조영국, 445-745,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전화: 031-299-0830, 이메일: ykjoh@uhs.ac.kr
- Correspondence: Young Kug Joh,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Hyupsung University, 72 Choe-rubaeck-ro, Bongdam, Hwasung, Kyonggido, Korea, Tel: 82-31-299-0830, E-mail: ykjoh@uhs.ac.kr
- 최초투고일 2016년 5월 4일
수정일 2016년 5월 19일
최종접수일 2016년 5월 23일